

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실전 사진촬영 ⑤

사진촬영에 실패하지 않는 법

기술적으로 실패하는 사진의 유형을 보면 몇 가지 되지 않는다. 가장 많은 것이 사진이 흔들리는 경우이고 두 번째가 사진의 밝기(노출)가 맞지 않는 경우이며 세 번째가 핀트가 맞지 않는 경우인데 콤팩트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핀트가 안 맞은 사진을 찍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더 많다. 사진촬영을 하면서 실패한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몇 년을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. 자신의 실패를 뒤돌아보지 않거나 실패한 사진에 대해 별로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. 이번 호에서는 사진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자.

글/삼성테크윈(주) 전략마케팅팀 차장 곽중근

• 실내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사진을 찍으면 실패확률 100%

우리가 찍는 사진의 50% 정도는 실내사진이다. 실내의 환경은 아무리 조명이 밝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는 데는 광양이 부족하기 마련이다. 우리의 눈은 매우 밝은 렌즈이므로 약간의 빛만 있으면 적응이 되고 사물을 분간할 수 있지만 카메라는 늘 일정한 양의 빛이 들어와야만 정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. 콤팩트 카메라의 경우는 실내에서 기본적으로 렌즈의 조리개를 제일 크게 개방하고 그 다음 해당 조리개에 맞는 셔터타임을 설정하는데, 이때 대부분 느린 셔터속도로 인해 사진이 흔들리는 것이다.



실내사진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셔터만 누르면 실패하기 쉽다. 실패한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면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.

촬영하기 전에 반셔터(살짝 누르는 셔터)를 하면 카메라 액정 왼쪽 상단에 숫자가 나타나는데, 예를 들어 f 3.8, 1/15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조리개는 3.8(큰 조리개)이고 셔터속도가 1/15초라는 표시인데 아울러 화면 중앙에 손바닥 표시가 나온다. 이 표시는 셔터속도가 느려 사진이 흔들린다는 경고표시이다. 따라서 이때는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흔들린 사진이 되므로 더 이상 같은 상태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.

• 셔터속도 1/60초 이상이어야 사진의 흔들림을 잡을 수 있다

손으로 들고 찍을 때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는 셔터속도는 1/60초 이상 되어야 한다. 그러나 실내에서 1/60초 이상 셔터속도가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. 그럴 때는 삼각대를 사용하거나 플래시를 사용하여 촬영해야 하므로 액정왼쪽의 셔터속도를 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.

전문가는 사진이 잘 나오지 않을 상황에서는 가방에서 아예 카메라도 꺼내지 않는다. 반면, 아마추어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이 흔들린다고 카메라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. 이것이 바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이다.



• 사진의 밝기(노출)에 자신이 없다면 AEB(Auto Exposure Bracketing)로 찍어보자

사진에 있어서 선명함이 첫 번째 생명이라면 사진의 밝기(노출)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이다.

카메라는 늘 일정한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 기계인데 상황에 따라 카메라의 기준보다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고 적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. 이런 판단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판단을 할 내공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
삼성카메라에는 어떤 기종에도 대부분 빠짐없이 있는 AEB(Auto Exposure Bracketing)기능을 갖고 있다. 이 기능 설명을 지난 번에도 한 적이 있지만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기능이므로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. 카메라가 판단한 정상적인 노출값과 그보다 어두운 노출값, 또 그보다 밝은 노출값, 이렇게 세장의 사진을 한번에 촬영하는데 풍경사진은 물론이고 중요한 인물사진 촬영에 매우 유용하다.



1STEP 부족



정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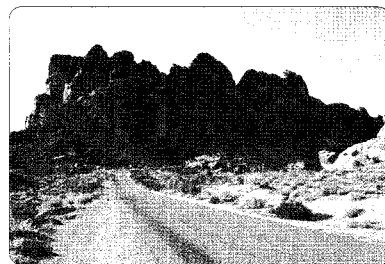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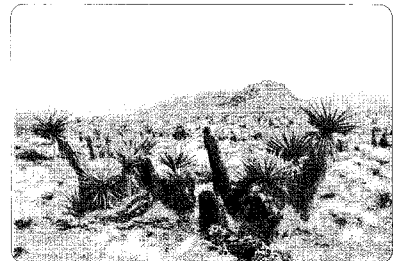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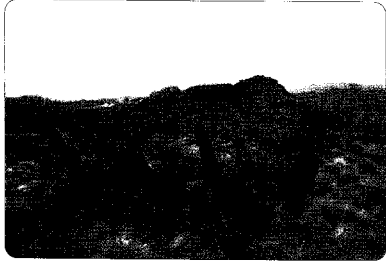
1STEP 오버

사진을 찍을 때 세 장씩 찍히므로 메모리 소비가 많아지긴 하지만 인물사진의 경우 의외의 다양한 포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. 특히 풍경사진의 경우는 노출이 정확히 나온 사진보다 어둡거나 밝은 사진이 더 좋은 경우도 많다. AEB모드로 촬영해 두면 의외의 대박을 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끔 활용해 보기 바란다.

• 역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

인물사진이든 풍경사진이든 역광을 많이 활용해 보라고 필자가 강조한 적이 있다. 역광은 사진을 찍기에 매우 훌륭한 광선이지만 노출에는 어려운 광선이다. 역광으로 찍되 노출보정에는 늘 신경을 써야한다. 역광사진이 어둡게 나올 확률은 95% 이상이며 이때도 AEB를 활용하면 훌륭한 역광사진을 찍을 수 있다.

한 가지 유의할 점은 풍경사진을 역광으로 촬영할 때는 굳이 노출보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. 그 이유는 풍경사진에서는 역광상태에서 보정을 할 경우 오히려 배경이 밝아지는 문제가 생겨 더 어색한 사진이 되는 경우가 있다.



노출보정으로 밝아진 사진

역광으로 찍은 사진

• 사진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빛이다

사진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카메라를 다루는 능력도 아니고 아름다운 피사체도 아니다. 정말 중요한 것은 빛이다.

필자가 강의를 할 때 꼭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'메디슨카운티의 다리' 라는 영화가 있다. 내쇼날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인 크린트 이스트우드가 시골마을에 있는 다리를 촬영하러 가서 가정주부인 메릴 스트립과의 로맨스그래이를 그린 영화이다. 이 영화에서 사진작가인 주인공이 사진을 찍다 다리 옆에 붙어있는 메릴 스트립이 저녁식사에 초대하는 메모를 보고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시 사진 찍기에 몰두하는 장면이 나온다. 사진을 다 찍고 늦게 메모를 본 주인공이 메릴 스트립에게 전화를 해서는 "빛이 변할까봐 메모를 늦게 봤다"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, 필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정말 사진에 조예가 깊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.

보통 사진가들은 처음 가보는 장소를 찍을 때는 현장답사를 통해 빛이 가장 좋을 시간을 확인한 후 다음날 그 시간대에 현장에 도착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경험이 많은 사진가일수록 그 지역의 광선상태(방향)를 머릿속에 입력해 두고 자신만의 노하우로 활용하기도 한다.

필자가 지난해 11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랜드캐년에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광선상태 때문에 실망을 한 적이 있다. 아무리 좋은 풍경이라도 광선이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좋은 경험이었다.



영화 '메디슨 카운티의 다리' 의 한 장면



광선상태가 좋지 못한 밋밋한 풍경



광선상태가 좋아 콘트라스트가 강한 사진